한글새김전 열어 25일까지 목아박물관

한글을 주제로 다채로운 조형미를 조망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주 목아박물관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제10회 한글새김전을 8~25일 개최한다.

목아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18명의 국내 유명 예술작가들이 한글을 이용한 회화, 공예, 조형, 문학 등 다양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목아박물관 박찬수 관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우리나를 대표하는 정신문화인 한글을 예술작품으로 재창조해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고 바른 글쓰기문화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시청광장서 대중명상 19일 '자비명상과 춤'

서울시청광장에서 대중명상이 펼쳐진다.

평화와비폭력을위한세계행진한국위원회(위원장 지관. 용화사 주지)가 10월 19일 오후 4시 30분 '평화, 느림에 빠지다-화해상생을 위한 자비명상과 자비춤' 행사를 연다.

'평화와 비폭력을 위한 세계행진(The World March for Peace and Nonviolence)'은 세계비폭력의 날인 2일부터 1월 2일까지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칠레에 이르기까지 100개 나라, 16만km를 순회하는 전 지구적인 행사이다.

이번 세계행진은 최근 전 지구적인 분쟁과 폭력적인 상황에 대항해 무장해제와 비폭력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마가스님의 걷기명상과 이종희씨의 춤명상이 차례로 진행된다.

마가 스님의 '걷기명상'은 내안에 있는 폭력성 참회하고 그것을 사랑과 자비로 감싸 안는 모두가 하나되기 위한 것이며, 춤명상은 지금있는 그 자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자리임을 자각하고 주인됨을 선언하는 명상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서울 용산참사현장에서 '평화와 상생을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가 열린다.

박선주 기자

불교방송 사장 후보 인선 '파국'

BBS이사장 영담 스님, 진흥원 민병천 이사장 노골적으로 비난

BBS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이 사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지 2년 여가 흘렀다. 사장 추천기관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직무대행 체제는 한때 극적인 화해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진흥원이 영입을 추진 중이던 4인의 사장 후보가 BBS의 '사장복무규정'을 이유로 모두 고사하고, BBS 이사장 영담 스님이 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서 파국을 맞고 있다.

진흥원은 10월 5일 이사회에 이어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BBS 사장 후보 추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신진욱 진흥원 대변인은 "5일 이사회 결과, BBS 사장후보 인선 작업은 계속하겠으나, 사장복무규정 등은 BBS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장후보 인선 작업은 진흥원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장복무규정'은 2008년 8월 제정 · 시행됐다. 2007년 12월 홍승기 前 사장이 퇴임한 이후 BBS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아직까지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사장복무규정'에는 사장이 간부 임명시 이사장과 합의해야 하는 등 사장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진흥원 측은 규정 자체가 사장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정 제정 이후 진흥원은 "사장 추천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차례 '사장복무규정' 폐기를 주장해왔다. 진흥원 김규칠 상임이사는 "BBS의 '사장복무규정'과 유사한 사례는 동종업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공영방송인 KBS도 매년 사장경영평가 등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상임이사는 "BBS 정관(제7조 2항)에도 '사장은 방송국을 대표해 방송국을 경영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사장복무규정'을 둔 것은 (진흥원 추천) 사장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BS측도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BBS 사장후보 추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영담 스님은 입장서에서 "6일 기자회견은 진흥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사장복무규정은 폐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사장복무규정에 대해서 영담 스님은 "대다수 전임 사장들이 경영성과는 못 내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무소불위의 인사전횡을 일삼았다"며 "법적 책임 주체인 이사회가 사장에 대해 일정부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BBS 측은 "전임 사장들에게 △연간 직원에 대한 인사명령이 100여 건에 달하는 경우 △허위영수증을 통해 부당청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진흥원은 BBS 개국 당시 산파 역할을 했다. 진흥원 故 장상문 이사장 때는 장 이사장이 BBS사장을 겸임하며, 사재를 쏟아 BBS의 기틀을 잡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진흥원 이사회에서는 진흥원과 BBS의 양 기관 모두 故 장경호 초대이사장의 서원에 의해 설립된 특수관계임에도 법인 대 법인의 일반관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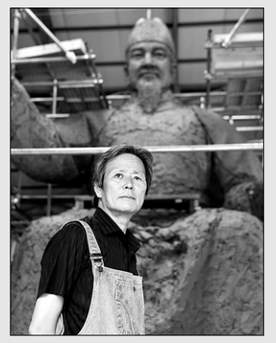
영담 스님은 "양 기관을 일반관계로 전환하자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진흥원과 BBS의 향후 관계설정 등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진흥원 측이 BBS에 "매년 8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BBS의 "진흥원으로부터 실질 지원은 없다"는 주장이 상충하는 현실에서 공개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사장 없이 2년 여를 표류하는 BBS의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이 울려퍼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게 교계의 여론이다.

조동섭 기자

'세종대왕 동상' 공개

불자 김영원 교수, 5개월간 무념 작업



10월 9일 제막식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세종대왕 동상(왼쪽), 세종대왕 동상을 작업한 김영원 교수.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닮은 세종대왕동상이 공개됐다.

10월 9일 한글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동상 제막식'을 통해 공개된 세종대왕동상은 조각가 김영원(홍익대 교수)이 20여 명의 동료 교수 및 제자와 밤을 세워가며 5개월간 작업한 작품. 40대 후반의 모습으로 동상 크기는 6.2m, 기단은 4.2m로 총 10.4m에 달한다. 선(禪)-조각, 기공명상(氣孔冥想), 윤회 등의 사상을 담아 작업에 몰두한 김영원 교수는 "이번 세종대왕 동상 작업이 개인적인 삶에 치우쳐 살다가, 타인을 위한 삶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였다"고 밝혔다. 그래서일까. 이번 세종대왕 작업은 지도자적인 위엄과 인자한 어버이 같은 모습이 두루 갖춰져 있다.

대한민국 사람 절반이상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세종대왕을 재현하는 일은 제작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김영원 교수는 "그런 부담감에 자괴감까지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중압감을 놓아 버리고 '그냥 하자'라는 일념으로 동상제작에 정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원 교수는 충북대교수불자회를 통해 신행활동을 했으며, 무불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하기도 했다.

이은정 기자

신계사서 13일 남북합동법회

민추본 '복원 2주년 기념법회' 계획 밝혀

금강산 신계사에서 10월 13일 남북합동법회가 열린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대표 명진, 이하 민추본)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2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의 추진 경과와 행사개요를 발표했다.

민추본 사무처장 진효 스님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현실에서 남불불교 교류와 통합의 상징인 신계사 복원(2007년 10월 13일) 2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합동법회가 향후 남북불교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오후 2시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남북합동법회는 조계종과 조불련 공동주체로 봉행되며 법회 진행도 남과 북의 공동사회자가 맡는다. 남측 참여인단은 사회부장 세영 스님을 단장으로 40여 명이 방북한다.

법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2시 금강산 온정각 옥규관에서 '남북불교대표단 회동'의 자리도 마련된다. 민추본 박재산 홍보계장은 "남측 대표단과 북측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근황이나 덕담을 묻고, 남북불교교류와 관련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내부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추본은 10월 8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교육장에서 신계사 복원불사 2주년 기념 토론회 '금강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열었다. 토론회는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의 '불교와 금강산' △이시우 작가(평화사진작가)의 '금강산과 통일미학' △정영철 교수(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의 '남북관계와 금강산'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선주 기자

정운찬 총리, 지관 스님 예방

7일 접견, "공원 경내지 해결에 적극 노력"

지관 스님과 정운찬 신임 총리.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가 10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정 총리는 "불교계가 역사적으로 나라발전에 크게 기여한 만큼 국정운영에 도움이 돼 달라"며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아직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나라의 과제가 많다. '사회통합'을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지나온 과거는 거울로 삼을 뿐, 앞으로 함께 해나갈 미래가 중요하다"며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총리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한편, 이어진 비공개 좌담에서 정 총리는 자리를 함께 한 주호영 특임장관으로부터 자연공원 내 사찰 경내지 해제 문제를 보고받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예방에 함께 한 주호영 특임장관은 "자연공원 내 사찰들이 4중 5중의 규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이기에, 2010년 공원구역 재조정에 불교계 의사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잘 조사해 문제가 원만 해결토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전문서점 15일 오픈

조계종 문화사업단, 정보센터 지하에 개점

조계사 인근에 대형 불교전문서점이 생긴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0월 15일 오후 1시 30분 조계사 맞은편에 위치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지하에서 불교전문서점 개점식을 갖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여는 330여㎡(108평) 규모의 서점에는 불교관련 고서와 장서를 비롯해 6000여 종의 불서 2만여 권이 비치된다. 책은 수행과 불교학술, 불교예술, 요가 및 다도, 소설 · 수필류 등으로 구분해 비치되며, 특히 어린이 불서를 눈에 띄게 전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네 명의 직원으로 서점을 운영하면서 점차 3만 여권까지 소장 도서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조계타운 인근의 영풍문고, 교보문고의 불서 코너 마저 기독교 코너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축소된 상황에서 이번 대형 불교전문서점의 오픈은 불서 출판 및 유통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前 불교출판문화협의회장인 민족사 대표 윤창화 사장은 "조계사가 한국불교의 총본산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불교전문서점 한 곳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불교전문서점 오픈을 계기로 불서 유통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문서포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봉행

(사)대한불교법상종 2009년도 종도 정기교육 및 법계 품수 수여식

미륵존불님께 귀의하옵니다.
중생교화와 종단발전에 늘 애쓰시는 대한불교법상종 종도 여러분께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법상종 2009년도 종도 정기교육 및 법계 품수 수여식'을 봉행하오니 종도 여러분께서는 종도교육과 법계품수 수여식에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종단 정기교육

◆ 일 시 : 2009년 10월 21일(수) - 23일(금)까지 2박 3일
21일 오전 10시 입재. 10월 23일 오후 1시 회향
◆ 장 소 : 안성 쌍미륵사 용화전
◆ 준비물 : 대가사, 반가사비용 100만원(가사색깔 괴색으로 바뀜
- 총무원에서 단체로 구입 가사색 통일) 교육비 10만원, 목탁, 요령 지참
* **가사비용은 교육 전까지 입금해주시면 교육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법상종 종도 법계 품수 수여식

◆ 일 시 : 2009년 10월 23일 (종도교육 회향일) 오전 10시부터
◆ 장 소 : 안성 쌍미륵사 용화전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 : 경기 평택시 세교동 569-8 / 전화 : 031)653-1250